

# 의사면허 제 1 호 오공선 박사 <上>



■ 이 재 흥

## 진정한 의학은 救世濟民

한문(漢文)을 수학하여 과거(科擧)로 출세하려던 명문가의 외아들이 신학을 배재학당에서 배우면서 새로운 인생관을 정립하고 미국 "루이빌" 의과대학에서 6년간 유학하고 1907년 졸업과 동시에 의학박사 학위를 받고 금의환향하여 치부나 명예를 버리고 한국의 개회기와 시해도 국민복지에 앞장서 박애와 봉사의 등불을 밝힌 해관 오공선박사의 전례오는 그의 생애를 간추려보기로 한다. (참조: 해관전기 김사달 글)

1978년 10월 4일 충남 공주군 사곡면 운암리에서 해주 오씨 인묵(仁默) 공파 한산 이씨 사이에 1남 3녀중 맏아들로

태어난 오공선의 호는 해관(海觀) (字)는 중극(重克)이다. 그의(家系)를 살펴보면 6대조 수업공은 청주목사, 7대조 도일공은 현종때 병조판서와 대제학, 9대조 윤겸공은 인조때 영의정을 역임하였으니 대단한 명문집안이었다. 특히 그의 9대조 오윤겸은 이조 중엽의 거유 우계성혼의 문하생으로 임진왜란뒤 통신사로 일본에 건너가 왜병들에게 끌려간 우리 백성들을 데리고 왔을 뿐더러 영의정을 역임하는 동안 갖가지 선정을 베풀어 어진 재상으로 후세에 까지 칭송을 받아왔고 사후에는 국왕으로 부터 충정공이란 시호를 받은 충신이었다. 이처럼 명

문 양반가문의 외아들로 태어난 오공선은 그당시 명문 자제들이 밟는 과거의 길에 오르기 위해 공주읍 인근지역인 우성면 어천리로 이사를 했고 이곳에서 그는 8세 때부터 이당진 서당에서 한학을 배웠다. 7세 때 부터 부친에게서 천자문과 동몽선습 등 한문의 기초를 배우기 시작한 해관 오공선은 이당진 서당에 들어가 논어, 맹자, 대학등, 사서(四書)를 수학하면서 천재적인 재질을 발휘하여 12. 3세때에 시를 지어 운(韻)을 붙임으로써 주위 어른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는 17세때까지 한문 수학에 열중하였으나 나라안은 매양 뒤숭숭하였다. 이러한 시기에(1885년 8월) 미국의 선교사가 「아펜셀러」에 의해 설립된 배재학당에서는 해외에서 신학문을 공부하고 귀국한 서재필 윤치호등이 미국 선교사들과 함께 신학문을 가르치고 있었으며 이승만, 신흥우, 민찬호등 이름있는 집안 자제들이 입학하여 영어, 물리, 세계역사 등 신학공부를 하고 있었다. 당시 해관 오공선은 1896년 초순 18세 소년으로 그의 스승의 추천으로 내무의 주사로 등용되어 관직을 맡기도 했다. 그는 새학문을 해야겠다는 새로운 결심으로 그해(1896년) 10월에 주사직을 사임하고 배재학당에 입학할 하게 되었다.

공주 시골 선비인 그는 새시대의 큰꿈을 품은채 시골 부모들 에게도 알리지 않고 자신의 결단으로 배재학당에 입학한 것이다. 사학의 명문으로서 출발한 배재학당은 오공선이 입학한 다음 해인 1897년부터 교복과 제모를 착용하기 시작했고 1898년에는 학생자치 사회인 협성

회의 결의로 단발을 단행하여 개화 내열의 앞장서기도 했다. 자신의 결의와 선견지명에 의해 배재학당에 입학한 그는 독립협회에 가입하여 사회활동을 하면서 각계 인사들과 친교를 맺게되자 그 다음해 임원 개편시에는 배재학당 대표로서 독립협회에 가입하여 사회 활동을 하면서 각계 인사들과 친교를 맺게되자 그 다음해 임원개편시에는 배재학당 대표로서 독립협회 간사로 선임되었고 1898년 1월에는 협성회에서 발간한 협성회보의 창간위원회로 이승만, 주시경과 더불어 활약함으로써 그의 실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 해에는 그가 몇해동안 길러오던 상투머리를 잘라버렸고 장남 한영(제2대 보건부장관 위임) 이 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독립협회에 가입하여 간사까지 된 해관 오공선은 이 협회가해산 당하자 청년층 간부들과 함께 만국공동회를 열어 협회의 부활과 구속된 간부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운동을 전개하게 되었고 이것이 결국 학군이되어 마침내 1899년 초에는 체포령을 당하고야 말았다. 시골부모와 아직 얼굴도 보지 못한 아들과 부인을 생각할때 외아들인 그로서는 어떻게든지 이 난국을 피하겠다는 생각으로 미국 선교사 스테프만 목사 집으로 피신을 하게 되었으며 이때의 인연으로 한글 선생을 구하고 있던 스테드만 목사집으로 피신을 하게 되었으며 이때의 인연으로 한글 선생을 구하고 있던 스테드만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개인교수가 되었다. 배재학당 학생으로 미국 선교사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준 예는 1894년도 입학생인 이승만이 처음이었다. 오공선도 뜻밖의 인연으로 선교사의 한글

선생이 되었으니 개화 초기에 미국유학을 한 이들이 그 동기가 선교사들과 자주 접촉하면서 영어 실력을 충분히 익힐수 있었고 또한 인간적으로 친숙해진 때문이었다. 문헌에 따르면 이승만도 배재학당에 입학한 직후 제중원에 의료선교사로 와서 환자를 돌보고 있던 여의사 화이팅에게 매달 20달러씩 받고 한글을 가르치면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것이다. 스테드만을 따라 공주로 내려간지 몇달후 투옥되었던 독립협회 간부들이 대부분 석방되고 사건이 수습되자 다시 상경하여 학업을 계속한 오공선은 그다음해인 1900년 봄 배재학당을 졸업했으며 졸업후에도 스테드만의 요청을 받아들여 한글을 가르치고 선교일을 돕는데 힘썼다.

1910년 여름 스테드만이 선교본부의 지시대로 선교지를 일본으로 옮겨가면서 그때 군산 야소교병원장으로 부임한 미국 남장로교 소속 의료선교사 알렉산더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었다.

그러나 6개월 후인 1902년초 알렉산더는 부친의 유언에 따라 텍사스주에 있는 본가의 유산을 관리하기 위해 돌아가게 되었다, 그후 알렉산더의 주선으로 그는 바로 켄터키주에 있는 쉐주얼 대학에 입학할수 있었다. 그때 입학금과 생활비의 일부는 알렉산더가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그의 입학은 비교적 순조로웠다. 알렉산더의 주선으로 등록금을 비롯한 학비 일체는 선교부로 부터 보조를 받을수 있었지만 그 생활비만은 자신 스스로가 벌어야 했기 때문에 출생후 처음으로 고생을 하게되었다. 어떤때에는 신문배달을 하거나 식당에서 집시를 닦아주면서 하숙비를 벌기로 하고 담배 제조장에 시

간제로 나가 주급 4~5달러를 받으면서 막일을 하기도 했다. 인종차별의 서러움과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하면서 고향한 끝에 그는 도미 2년만인 1904년 봄에 쉐주얼대학 2년 과정을 수료했다. 당시 학비를 보조해 주는 선교부로부터 신학을 공부하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당초의 결심대로 의료선교사가 되겠다는 양해하에 같은 켄터키주안에 있는 루이빌의과대학에 편입을 하게 되었다. 26세가 되던해에 의과대학에 편입한 해관은 젊은 미국학생들 틈에 끼인 만학도로써 오직 공부에만 열중했지만 신자가 된후부터 끊었던 술과 담배도 다시 시작하여 고독과 시름을 달래기도 하였었다. 의과대학에 편입한 3년동안 눈물겨운 노력끝에 1907년 3월에 졸업하여 의사가 되었으며 동시에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도미한 유학생중 안창호는 대학을 중도에서 중단했고 1904년에 도미한 이승만은 프린스턴 대학에서 공부한후 1910년에 박사학위를 받았으니 해관보다 3년후에 얻은 영광이었다.

루이빌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그곳 시립병원에서 6개월 동안 인턴과정을 거친 해관은 1907년 11월 고국을 떠난지 6년만에 금의환양했다. 루이빌 시립병원에서 과정을 마친 해관은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부가 한국에 파견하는 의료선교사로 위촉되어 1907년 10월에 샌프란시스코항을 출항하여 귀국길에 올랐던 것이다.

알렉산더를 따라 인천항을 떠난지 만 5년 10개월만의 귀국이 되었던 것이다. 귀국후의 그의 인기는 대단하여 경향각지에서 화제가 되었다. 그는 정삼품(正

과일, 야채 냉장고 보관 요령

- ▲ 과일·야채등을 냉장고에 넣을때는 씻지말고 그대로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 할것. 물로 씻으면 쉬이상하고 영양손실이 생긴다.
- ▲ 설익은 토마토를 알맞게 익히려면 공기가 통하는 종이봉지에 담아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 상온(섭씨24도가량)으로 놓아둔다. 너무 익히면 비타민C가 파괴된다.
- ▲ 바나나를 익히려면 섭씨21도의 상온으로 놓아둔다. 기온이 더 높으면 너무 빨리 익어 상하기 쉽다. 냉장고에 넣어 두면 익기도 전에 상하며 익은 바나나도 냉장고에 넣으면 상한다.
- ▲ 우유는 섭씨 4~5도에서 10일간 신선하게 보관된다. 제일 맛있는 우유를

먹으려면 3~5일내에 먹어야 한다.

우유용기는 산 날짜순으로 놓아두어 먼저 산 것을 먼저 먹도록 한다. 주전자에 남아있는 우유는 본래의 용기에 퍼붓지 말고 주전자를 꼭 봉해두었다가 당일로 사용한다.

▲ 빵은 냉장고의 냉장칸에 넣지않는 것이 좋다. 실내온도나 냉동실에 두는것보다 빨리 상하고 단백질이 빨리 파괴된다. 이미 봉지를 뜯은 빵을 가장 신선하게 보관하려면 꼭 봉해서 냉동실에 넣는다.

▲ 당일 먹을 생선은 얼음을 넣은 비닐봉지에 넣었다 쓰고 나중 쓸것은 쿠팡호일이나 식품포장용 비닐로 잘싸서 냉동실에 얼린다.



三品)의 관직과 1백50여원의 급료를 받을수 있는 황실의 전의나 대한의원 의관을 권고받기도 했지만 그는 모든 명예를 사양하고 50여원의 급료를 받을수 있는 군산 야소교 병원장으로 부임하여 서해안 산간벽촌의 불우한 환자 진료에 나선 것이다. 이는 미국 선교부나 알렉산더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신의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의학을 선택할때 그 자신이 결심한 구세제민의 길이 영세민을 위한 참된 봉사에 있다는 신념에서 였다.

그는 박씨부인과 결혼한지 꼭15년만에 처음으로 군산으로 부임하면서 부인과 두 자녀를 데려가서 살림을 시작하였다. 그

는 5년이나 연상인 부인을 소박하지 않고 일평생을 함께산 모범가장이기도 했다.

이후부터 1910년 광주 야소교 병원장으로 자리를 옮길 때까지 3년동안 군산에서 의료봉사활동을 전개한 해관은 이 지방의 개화와 문맹퇴치를 위해서도 크게 공헌했다. 주된 임무인 의료사업과 선교활동에만 만족할수 없었던 그는 군산에 부임한 다음해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한 안락학교를 설립·운영하였고 그 다음해에는 다시 중학교 과정의 영명 학교를 세워 청소년 교육을 시작했다.

〈필자=연세의대 기생충학교실〉